

## LH 공사 신입사원의 대학교육 소감



박남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리

### 1. 신입사원으로서 첫 직장생활

대학 4년의 과정을 마치고 취업이라는 문턱에 섰을 때, 당시 국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채용공고문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였을 정도로 취업률이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던 걸로 기억한다. 취업을 포기하고 대학원이라는 길을 선택하였고, 석사 학위 취득후 1년의 준비기간을 통해 LH공사에 입사하였다. 4주간의 연수원 생활을 거쳐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현재까지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주변에서는 공기업에 입사했다는 축하의 말보다 부채 많은 회사에 입사한 것에 대한 걱정의 말이 앞섰다. 그러나 국내 최대부채 공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회사이지만, 정부정책사업(서민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에 따른 부채라는 사실을 정부에서는 “방만 경영”이라는 단어로 단정 짓고 “공기업 정상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모든 것이 공기업의 탓인양 매스컴에 떠들어대고 있는걸 보면 안타깝고 신입사원으로써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은 돌아간다. 공사와 각종 용역 감독업무를 겸임하고 있어서 출근하면 민원처리, 설계변경, 현장감독, 각종 행정 업무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다. 그러나 바쁜 와중에도 250만평이라는 넓은 논밭이 조금씩 국가산업단지로 변모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 현장감독으로써 여기서 일하고 있다는 것에 뿌듯하고, LH공사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든다.

### 2. 신입사원으로서 대학교육에 대하여 느낀 점

돌이켜 보면 대학교육을 통해 얻은 성적은 토목기사라는 자격증과 졸업장 두 가지가 생각이 난다. 4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성적이라기엔 너무도 당연하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부산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이외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과는 별도로 개인이 목표(영어성적, 자격증, 봉사활동 등)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야 한다. 나 역시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이라는 단어를 체감하기 전까지 취업에 대해 무감각한 것 같다. 이는 누구 하나 진로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학부 초기에서부터 취업한 선배들이나 실무자들을 초빙하여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기회가 있었다면 후배들이 취업을 준비기간이나 취업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들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자의 기억으로 4학년 과정 중에 실무에 종사하는 선배를 초빙하여 수업을 진행 했었던 적이 있는데, 토목이라는 과목을 전공하고 실무에 나갔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게 될까 하는 의문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시간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그러한 강의가 학부 초기(1학년이나 2학년)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물론 대학이 취업을 위해 존재하는 곳은 아니지만 실무에 나가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실무에 종사하는 선배를 초빙하여 후배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일찍 주어진다면 선배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후배들이 반복하는 일은 최소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3. 실무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식 필요성

대학교육과 실무라는 두 단어를 놓고 봤을 때 “양날의 검”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대학이라는 곳은 본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장소이지 취업을 위한 곳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가 취업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학생들에게 학문만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취업”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 시대적 요구가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졸업후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취업설명회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끔씩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를 결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한다. 이는 지방대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진로에 대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면 취업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실무에 나와 대학교육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이 실무에 적용되는 경우가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전공서적에서 배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실무에 투입되면 일을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는 점이다. 대학과정이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봤을 때 학문에 대한 배움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실무에 투입되었을 때 원활한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준비가 되도록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토목공학을 전공하게 되면 4학년 때 토목기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보통의 학생들이 토목기사를 취득하게 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토목기사를 취득할 정도면 토목의 기본 소양은 갖추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무에 투입되었을 때 무리없이 적용할 수 있을까? 새로운 일들을 처음부터 배워야 하기에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무에 최대한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실무에서 쓰이는 도구에 미리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업계나 마찬가지겠지만 토목에서는 CAD와 EXCEL을 모르면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에서 CAD와 EXCEL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업무에 기본이 되는 도구에 익숙하지 못해 실무적응에 힘들어 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실무에 투입되기 전에 이러한 도구들을 미리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4. 대학교육과 실무의 연계 개선방안

**(외부강사제도 도입)**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대학교육과 실무를 연계하기 위해서 학부 초기 과정에 실무자를 초빙하여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학생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하는 “외부강사제도”를 도입 및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겠지만 정규과정으로 등록시킨 경우는 거의 없다. 토목공학전공자로서 토목공학과 4학년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1학년 때는 교양과목, 2, 3학년에는 토목공학의 기본전공, 4학년에서는 좀더 세부적인 전공에 대해 배우고 졸업이라는 과정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취업준비 기간을 통해 토목의 여러 분야로 진출을 하게 된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4년의 학부 과정 동안에는 토목의 기본적인 학문에 대해서만 배울 뿐, 취업 후 어느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방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 전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시기가 다가오면 취업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짧게는 1년, 길게는 4~5년의 취업준비기간을 가진다. 학생들의 취업 준비기간을 줄이고 취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학부 1학년에서부터 토목공학 전공후 진출할 수 있는 분야(공무원, 공기업, 설계회사, 시공회사 등)에 대해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학년 때부터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위한 외부강사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게 되며 나아가 국가생산성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자격증취득 학점인정제도 확대)** 두 번째로 취업후 실무에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 쓰이는 도구들을 대학교육에서 미리 습득하는 것이다. 졸업후 토목의 여러 분야로 진출했을 때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를 모르고서는 업무를 할 수가 없다. 설계도면은 CAD로, 설계내역서는 EXCEL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교육에서 CAD와 EXCEL을 다루는 능력을 미리 습득한다면 실무에 진출했을 때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고 개인적이 능력도 향상시킬 수 것이다. 현재 대학에서는 외부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범위는 한정(필자의 경우 컴퓨터관련 2학점, 영어성적 2학점)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학점을 인정해주는 범위를 보다 세분화(CAD, EXCEL, 한글, 파

워포인트, 영어성적 등) 시키고 그 인정범위도 확대시킨다면 학생들의 개인적인 능력 향상은 물론 실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미리 대학에서 습득할 수 있고, 대학의 입장에서도 준비된 인재를 배출한다는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이 실무자와 학생들을 연결시켜 주는 제도(외부강사제도 도입, 자격증취득 학점인정제도 확대)를 정규과목에 도입 및 확대 시행한다면 학생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학점, 자격증, 실무 적응력 향상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5. 대학원 졸업 후 직장생활의 장점 및 단점

석사학위를 각 기업마다 인정해주는 범위가 다르지만 분명히 “석사학위소지자”라는 특수성은 존재한다.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2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취업시기도 늦춰지는 단점이 있지만, 석사학위 취득으로 경력, 호봉, 진급 등 여러 방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학부졸업생보다 유리하게 작용한다. 대학원 교육과정중 업무적으로 직장생활에 영향을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세미나”라는 학과과정인 아닐까 생각한다. 세미나는 자신이 수업을 준비하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발표력 향상과 돌발질문에 대응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필자의 경우 설계회사, 시공회사, 지자체 등 다수의 기관들과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세미나를 통해 단련된 노하우들이 타 기관과의 업무 협의나 직장 내부에서도 상대방을 이해·설득시키는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단련된 노하우는 직장생활은 물론이며 취업 준비시 면접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다. 필자의 경우 세미나에서 준비했었던 주제가 면접시 토론주제로 나와 다른 지원자보다 유리하게 작용했던 점이 생각난다.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과정에서 토목이라는 학문의 “숲”을 배웠다면, 대학원과정에서 토목이라는 광범위한 학문중에서 자신이 관심있는 “나무”를 선택하여 자세히 배울 수 있다. 또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 대부분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맡은 분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이는 입사후 업무에 임하는 자세와도 연관이 된다.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대학원 과정에서 이미 수련이 되었기 때문에 학부 졸업생보다 업무처리능력 면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 6. 맺음말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물량 축소로 토목분야는 다른 산업분야보다 취업의 문이 더더욱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대학도 취업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그에 맞는 학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부초기 실무자와 학생들을 연계시키는 외부강사제도 도입과 실무에 자주 쓰이는 도구를 학생들로 하여금 습득하게 하는 교육방법을 추가 구성한다면, 대학이 학문만 연구하는 상아탑만이 아닌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연구와 취업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